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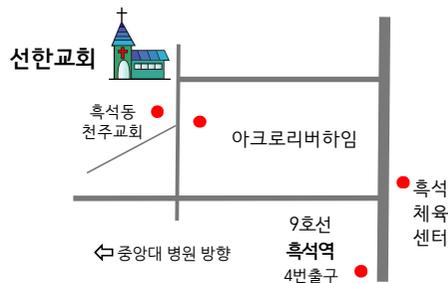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1부 주일 오전	9:30		
2부 주일 오전	11:00	믿음의 씨앗 (유아부)	오전 11:00 여호수아회 오후 2:00
3부(청년) 오후	1:00	선한 꿈 (유초등부)	오전 11:00 요셉회 오후 2:00
주 일 오후	3:30	파워틴 (청소년부)	오전 11:00 바울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년부	오전 10:00 루디아회 오후 1:00
금 요 기도 회	금요일 저녁 8:30	비전위십	오전 1:00 마리아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오전 2:00 드보라회 오후 2:00
셀가족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오전 2:00 에스더회 오후 2:00

섬기는 분들

<b>사역자</b>	<b>담임목사</b> 임춘배	<b>국내선교사</b> 오인숙, 한배선
	교육목사 정용준	<b>협력교회</b>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협동목사 홍진표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교육전도사 윤영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협력전도사 오호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b>은퇴장로</b>	고상돈, 김대희	<b>해외협력선교사</b> 김만조, 이금춘, 조나단
	박희태, 유신웅	
	조윤익	
<b>장로</b>	편도선 (집사장)	<b>관리장로</b> 손석규
	박영근, 윤호중	<b>500/50 교회</b>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계승, 이태수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고후 9:6)  
 whoever sows generously will also reap generously

**실천사항** 물질 심기      기도 심기      복음 심기

**삶의 방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 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히 13:7)



기독교 한국침례회 **선한교회**  
 담임목사 임춘배

#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3부 오후 1:00

인도: 임춘배 목사  
인도: 정용준 목사

1, 2부		3부(청년)
기원	인도자	경배와 찬양
찬양과 경배	15장 (통일찬송가 55장)	
교독문	교독문 3번 (시편 4편)	
찬양과 경배	292장 (통일찬송가 415장)	
기도	박영근 장로	
찬양	드림성가대	
성경봉독	히브리서 13장 7~9절	삼상 1:26~28
설교	<b>마지막 권면들 2</b> (임춘배 목사)	<b>은혜의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b> (정용준 목사)
헌금	헌금송 : 유영은 청년	담당자
환영 및 광고	인도자	청년부 회장
파송의 노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축도	임춘배 목사	정용준 목사
성도의 교제	다함께	

# 주일 오후

사회: 임춘배 목사

찬양	Joy And 찬양팀
기도	오세일 권사
말씀	이사야 19장 1~17절
설교	애굽에 관한 예언 (임춘배 목사)
광고 및 축도	임춘배 목사

# 수요일예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내 백성이여 들으라 (시편 81편 1~16절)

#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안내**
  - 1) 주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 2) 교회헌금계좌: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 3) 오늘 점심봉사는 드보라회입니다.
  - 4) 주차안내
    - ① 중앙대 정문 주차장 이용.  
(네 시간 주차: 2천원권 / 네 시간 이상 주차: 5천원권).  
\* 주차권은 교회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② 흑석종합사회복지관 무료 주차 가능.
- 부서별 사역조정**

오늘 2부 예배 후 부서별 사역조정이 있습니다.  
\* 장소: 지하 2층 청소년부실
- 설명절**
  - 1) 다음 주일(11일) 예배는 오전 예배만 있습니다(점심 식사 제공 없음).
  - 2) 금요기도회(9일)와 새벽예배(9, 12일)는 없습니다.
  - 3) 설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본당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비전트립**

1월 29일(월)~2월 9일(금)까지 비전트립이 있습니다.
- 유초등부 겨울성경학교**

1월 14일, 21일, 28일, 2월 4일 (4주간)  
\* 주제: 노아 메이커스
- 선한교회 장학생 선발**
  - 1) 신청기간: 4일(주일)~18일(주일) 자정까지 2주간.
  - 2) 신청방법
    - ① 이메일: jgw1025@naver.com
    - ② 서면제출: 장학금 안내 서류 및 신청서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3) 문의: 경조장학부 정구원 집사(010-5800-2692).

#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찬양 '주여 지난밤 내 꿈에' 490장(통542)

본문 창세기 28장 12~15절

말씀

사람은 누구나 잘 때 꿈을 꾸는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꿈은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상을 일컫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일을 성취한 사람들은 모두 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합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일꾼들은 지식과 지혜가 많거나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분명한 꿈을 꾀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와 영광을 누리려면 꿈이 분명해야 합니다. 막연한 꿈은 일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막연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꿈을 자세히 꾸십시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벽에 붙여놓고 그 꿈이 뚜렷해질 때까지 날마다 바라보십시오.

둘째로 꿈이 이미 이뤄진 것을 강력히 바라보십시오.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건강해져서 골프를 멋지게 치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그리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꿈을 통해 이뤄집니다. 꿈은 잉태되어야 해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저는 영롱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꿈입니다. 아직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보이는 것이 없어도 이루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셋째로 계속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팔자소관(八字所關)이야 운명이지 성격은 바뀌지 않아.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그러나 그 사람은 진정으로 자아가 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르는 순간에 꿈이 이뤄지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기적은 영적 법칙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꿈의 재료입니다. 하나님은 꿈의 재료로서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재료로 꿈을 그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것입니다. 꿈은 계속 자라게 돼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하면 예언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돼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꿈을 잉태하십시오. 그 꿈이 이뤄진 것을 강력히 바라보고 계속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

## 마지막 권면들 2 (히 13:7~9)

서론 히브리서 저자는 마지막으로 수신자들에게 몇 가지 실제적인 권면들을 주고 있습니다.

## 1. 실제적인 권면들

- (1)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던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7절)
- (2)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기억하라(8절)
- (3) 유익이 없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9절)

본론

## 2. 교훈

- (1)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 (2) 나는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가?
- (3) 내가 지금 끌리고 있는 교훈이 유익한 것인가?

결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배 기도	박영근 장로	편도선 장로
2부 예배 헌금	심인섭 집사	김재준 집사
오후 예배 기도	오세일 권사	
주 방 봉 사	드보라회	

매일 Q.T.		세금과 부활에 대한 천국 시민의 이해	날짜 : 2월 5일 월요일
찬양	찬송가 462장 생명 진리 은혜 되신		
본문	마가복음 12:13~27		
말씀요약	예수님 말씀을 책잡으려는 사람들이 그분께 세금 문제에 관해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자식 없이 죽은 칠 형제와 한 아내'에 관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는 그들의 오해를 지적하시며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목상질문 1	세금에 관한 논쟁 12:13~17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성도는 납세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나요?		
목상질문 2	부활에 관한 논쟁 12:18~27 부활 이후 우리 몸은 어떤 존재와 같아지나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은 오해하고 성경을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마가복음 12장 24절 현실 문제를 극복하고 바른 소망을 품으려면 성경과 하나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가 신앙생활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몰랐다'는 이유로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은 오늘을 살아갈 힘이며, 미래를 향한 안전하고 확실한 소망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제 미련한 모습을 용서해 주소서. 제 인생과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지혜롭게 구별해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게 하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말씀을 겸손히 배우게 하소서.		

개인 성경 공부 "주님이 인정하시는 헌신"	
찬양과 기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새 288)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목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19세기 영국, 크리켓에 소질이 있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16살에 이미 유능한 선수로 이름을 알렸고, 19살에는 팀의 주장으로 활동하며 세계적인 운동선수로 성장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 들어간 그는 어느 날 드와이트 무디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심한 그는 자신의 삶을 모두 그리스도께 바치기로 결단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전 생애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허드슨 테일러의 중국 선교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선교사로 활동하던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거액의 유산이 그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즉시 모든 유산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무디 신학교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의 사역과 구세군 사역에 기부했습니다. 1894년 건강이 악화되어 선교지에서 잠시 돌아온 그는 1900년 인도 선교사로 나가 6년간 섬겼습니다. 이후 1908년 리버풀에서 한 포스터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아프리카 식민종들도 선교사를 기다린다"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그리스도를 전하러 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다시 1913년 아프리카 콩고로 떠나 18년간 사역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찰스 토마스 스테드(Charles Thomas Studd)입니다. 스테드가 세운 아프리카 심장 선교회는 1982년 WEC국제선교회로 이름을 바꾸었고, 지금도 매우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린 한 사람의 헌신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요? 내 삶에 영향을 미쳤던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말씀 나누기	마가복음 12:35~44
목상포인트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통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분의 권위를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했지만, 예수님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한 그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늘 깨어서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하고, 가식과 위선을 미워하며, 순전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행합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 시간, 재능 등을 마음 중심에서부터 기쁘게 드립니다. 그러한 삶에는 칭찬과 상급이 따릅니다.
관찰과 목상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어떤 모습을 특별히 삼가라고 교훈하셨나요?(38~40절)
적용하기	사람을 의식해 내 신앙을 좋게 포장하려는 태도는 멀리해야 합니다. 내가 버려야 하는 외식 또는 위선적 태도는 무엇인가요?
함께 기도하기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저의 이기적인 욕망과 헛된 마음을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구원자요 왕이신 주님을 마음 깊이 경외하며, 주님께 받은 은혜에 진정성 있는 헌신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대한난 후에 있을 인자의 영광스러운 재림	날짜 : 2월 9일 금요일
찬양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본문	마가복음 13:14~27		
말씀요약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면, 산으로 도망해야 합니다. 그날은 환난의 날이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현혹하려 할 것입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셔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실 것입니다.		
목상질문 1	두려운 환난의 날 13:14~20 하나님이 두려운 환난의 날을 줄여 주시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장차 임할 두려운 환난 날을 대비해 나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목상질문 2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 인자 13:21~27 인자가 권능과 영광으로 재림하시는 때 나타나는 징조는 어떤 것들인가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환난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한절목상	마가복음 13장 22~23절 신앙은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리 말하였노라'라는 말은 '미리 보여 주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백성이 분별할 수 있도록 장차 있을 일에 관해 미리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기록된 '성경'을 통해 미리 보여 주십니다. 성경을 가까이하고 묵상하는 성도는 죄에 넘어지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실 그날에 제가 기쁨으로 서도록 택함받은 자답게 살기 원합니다. 거짓과 이적에 현혹되지 말도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게 하소서.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찾으시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매일 Q.T.		모든 것보다 우선시할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날짜 : 2월 6일 화요일
찬양	찬송가 218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본문	마가복음 12:28~34		
말씀요약	예수님은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묻는 서기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은 그 말씀이 옳다 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재물보다 낫다고 답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하십니다.		
목상질문 1	가장 큰 계명 12:28~31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예수님은 무엇이라 답하셨나요? 예수님이 답하신 가장 큰 계명을 나는 일상에서 어떻게 실현하고 있나요?		
목상질문 2	서기관의 지혜로운 대답 12:32~34 서기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엇보다 낫다고 말했나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내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한절목상	마가복음 12장 30~31절 하나님이 주신 최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분명한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입니다. 이것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인종과 종교와 신분에 상관없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신앙으로 사는 삶의 대전제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저를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제 삶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이웃에게 넘치도록 흘러보내게 하소서. 후회 없이 사랑하고 주저함 없이 사랑해, 사랑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매일 Q.T.		다윗이 고백한 주님, 주님이 찾으시는 헌신	날짜 : 2월 7일 수요일
찬양	찬송가 215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본문	마가복음 12:35~44		
말씀요약	예수님은 다윗이 '주'라고 칭한 그리스도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를 원하며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하는 서기관들은 중한 판결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한편 두 렵돈을 헌금함에 넣은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니, 누구보다 많이 헌금했다고 하십니다.		
목상질문 1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12:35~37 다윗이 그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호칭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호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서기관들의 위선, 가난한 과부의 헌신 13:38~44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위선과 과부의 헌신을 대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선과 진실한 헌신을 구별하시는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할까요?		
한절묵상	마가복음 12장 43~44절 하나님은 그분 백성의 마음을 보십니다. '...보다 많이'라는 말은 비교급 표현으로, 과부의 헌금이 모든 사람보다 더 많다는 뜻입니다. 과부의 헌금은 두 렵돈에 불과한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과부가 드린 생활비 전부는 그에게 생경과도 같은 큰돈입니다. 예수님은 액수가 아니라 그 의미를 보시기에 더 많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척도는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담긴 우리의 '중심'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간혀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제 마음과 걸음을 밝히 비추시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저를 위한 종교적 허영을 버리고, 주님을 향해 순전한 헌신을 드리게 하소서.		

매일 Q.T.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	날짜 : 2월 8일 목요일
찬양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본문	마가복음 13:1~13		
말씀요약	예수님은 성전 건물들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있을 텐데, 이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먼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인해 핍박과 미움을 받게 되지만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습니다.		
목상질문 1	성전 멸망을 예언하심 13:1~8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는 어떤 것들인가요? 전쟁과 재난의 소식이 들리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취할 자세는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복음 전파와 종말 13:9~13 복음 전파와 마지막 때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의식을 가지고 내가 깨어 준비할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마가복음 13장 9절 주님의 길을 따르는 성도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공회와 회당에 속한 이들은 적대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말세에는 예수님의 공동체를 핍박하는 일에 서로 연합합니다. 성도가 당하는 핍박은 죄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당하는 핍박을 잘 견디면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됩니다. 핍박의 길은 모질지만, 그 길 위에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는 크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오늘도 제 삶의 중심에 주님이 임하시도록 충성의 걸음을 펼치고 기쁨의 가치를 흔들게 하소서.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시면 어떤 것이라도 내어 드리며 왕이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